

결승골 넣고 감동 세리머니 ... '멋진 손'



13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대한민국 대 레바논의 경기. 손흥민이 페널티킥으로 역전골을 넣은 뒤 유로2020 경기 도중 쓰러진 토트넘의 옛 동료 에릭센의 등번호 23번을 손가락으로 표시하며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벤투호, 2-1 레바논 꺾고 2차 예선 무패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진출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H조 최종 순위

H조	승	무	패	득실차	승점
대한민국	5	1	0	21	16
레바논	3	1	2	3	10
투르크메니스탄	3	0	3	-3	9
스리랑카	0	0	6	-21	0

※북한 불참에 따라 북한의 경기 모두 무효 처리

자료/ FIFA

연합뉴스

벤투호가 '캡틴' 손흥민(토트넘)의 페널티킥 결승골을 앞세워 레바논을 꺾고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무패 행진으로 최종예선에 진출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3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레바논과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H조 최종전에서 상대 자책골과 손흥민의 페널티킥 결승골이 어지머 2-1 역전승을 거뒀다.

한국은 H조 2차 예선에서 6경기 연속 무패(5승 1무·승점 16)를 펼치면서 조 1위로 최종 예선 무대에 올랐다.

다만 한국은 이날 레바논에 먼저 실점하면서 2차 예선 '무실점 완수'를 아깝게 놓쳤다. 2차 예선 일정을 모두 마친 한국은 오는 9월부터 12개 팀이 겨루는 최종 예선 무대에 나선다. 최종예선 조 추첨은 7월 1일 예정이다. 팀당 10경기가 치러지는 최종예선은 오는 9월, 10월, 11월과 2022년 1월 및 3월에 펼쳐진다.

대표팀은 손흥민과 황의조(보르도)를 투톱 스트라이커로 좌우 날개에 송민규(포항)와 권창훈(수원)을 배치하고, 중원에 이재성(울슈타인 킬)과 정우영(알 사드)을 내세운 4-4-2 전술을 들고나왔다. 경기 초반 레바논의 '선수비 후공격'에 좁혀뒀던 공격 전개에 애를 먹은 한국은 김문환의 아쉬운 볼 처리가 실점의 빌미가 됐다.

전반 12분 김문환이 볼을 치고 나서려다 빼앗기면서 역습을 허용했고, 골 지역 정면 부근에서 볼을 잡은 레바논의 하산 사드가 원발 타닝슛으로 득점에 성공했다.

전반을 0-1로 마친 한국은 후반 시작과 함께 이재성 대신 남태희(알 사드)를 투입했고, 후반 5분 만에 동점 골이 터졌다.

손흥민의 오른쪽 코너킥을 송민규가 골 지역 정면에서 헤딩한 게 레바논 수비수 사브라 머리를 맞고 굴절되며 골대 왼쪽 구석에 꽂혔다. 득점은 사브라의 자책골로 기록됐다.

승부의 균형을 맞춘 한국은 후반 20분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이 투입한 침투패스를 남태희가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잡아 드리블하는 상황에서 넘어진 레바논 수비수 조안 오마리의 손에 볼이 닿았고, 주심은 핸드볼 반칙으로 페널티킥(PK)을 선언했다.

손흥민은 후반 20분 페널티킥 키퍼로 나서 역전 결승 골을 터트렸고, 곧바로 중계 카메라로 달려가 손가락으로 '23'을 만들고 "크리스티안, 스테이 스트롱. 아이 러브 유(Christian. stay strong. I love you)"를 외치는 세리머니를 펼쳤다.

23번은 에릭센의 토트넘 시절 등번호다.

손흥민의 세리머니는 이날 2020 유럽축구선수권대회에서 쓰러진 '동갑내기' 옛 토트넘 동료 크리스티안 에릭센(인터밀란)에게 안부를 전하는 감동의 장면이었다. 손흥민은 경기가 끝난 뒤 이날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주는 '맨 오브 더 매치'(MOM)를 수상했다.

/연합뉴스

박찬호 부상 ... KIA, 총체적 난국

롯데와 더블헤더 1차전 불펜 난조로 6-8 패배

투타 활약 박찬호 어깨 통증 호소 ... 당분간 결장 불가피



박찬호의 '투혼'도 팀의 승리는 부르지 못했다. KIA 타이거즈는 13일 사직구장에서 롯데 자이언츠와 더블헤더를 치렀다.

지난 11·12일 경기가 모두 비로 취소되면서 이날 2경기를 소화한 KIA는 1차전에서 롯데를 꺾었다.

박찬호가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지만, 부상에 팀 패배가 겹치면서 아쉬움을 감수해야 했다.

박찬호가 공·수에서 초반 흐름을 주도했다. 1-0으로 앞선 3회 박찬호가 수비에서 박수를 받았다.

이날 첫 선발 등판에 나선 '사이드암' 윤준현이 2사 만루에 몰렸고, 강보한의 타구가 외야로 향했다.

유격수와 중견수 사이에 떨어지는 텍사스성 안타가 예상됐던 순간 열심히 외야로 달려갔던 박찬호가 손을 뻗어 공을 낚아챘다. 이와 함께 2타점

적시타가 유격수 플라이로 바뀌었다.

특급 수비로 실점을 막은 박찬호는 4회에는 방망이로 롯데를 울렸다.

터커의 몸에 맞는 볼과 김호영의 내야 안타로 만들어진 2사 1·2루, 타석에 선 박찬호가 우측 펜스를 때리는 2루타로 2타점을 수확하며 3-0을 만들었다.

하지만 박찬호와 KIA는 끝까지 웃지 못했다.

바로 이어진 4회말 수비에서 KIA는 역전을 허용했다.

윤준현이 투 아웃까지 잘 잡았지만 마차도를 볼넷으로 내보낸 뒤 추재현에게 우전안타를 맞았다. 그러자 바로 KIA 불펜이 가동됐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박준표가 두 번째 투수로 나와 볼넷으로 만루를 채웠고 연속 안타를 맞으면서 순식간에 승부가 3-3 원점으로 돌아갔다.

6회초 KIA가 황대인의 솔로포로 다시 4-3리드를 잡았지만, 악몽의 6회말이 찾아왔다.

5회를 삼자범퇴로 막은 박준표가 6회 좌측 2루타를 내주자 이번에는 홍상삼이 구원 등판했다.

홍상삼이 추재현을 좌익수 플라이로 처리하면서 원아웃은 만들었지만, 손아섭의 타석에서 안타까운 부상이 나왔다.

2루 베이스 옆을 빠져나가는 타구를 잡기 위해 유격수 박찬호가 몸을 날렸다. 글러브로 공을 막았지만 이내 박찬호가 어깨를 붙잡고 고통을 호소했다.

크고 작은 부상에도 염상 없이 곳곳하게 자리를 지켜왔던 박찬호였기에 팬들에게도 가슴 철렁한 장면이 됐다.

박찬호는 경기를 뛰겠다고 고집을 부렸지만 결국 유격수 박민이 투입됐다.

이후 홍상삼이 연속 안타로 다시 3실점을 하는 등 KIA는 불펜 난조로 8실점을 했다.

KIA가 9회초 공격에서 롯데 마무리 김원중을 상대로 2점을 뽑아내면서 6-8까지 추격했지만 결국 삼자범퇴로 패배가 남았다.

교체 후 아이싱을 하면서 안정을 취한 박찬호는 2차전 라인업에서 제외됐고, 14일 병원 검진을 받을 예정이다. 어깨 부위 부상이어서 당분간 결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남드래곤즈, 1위 자리는 지켰다

K리그2 16라운드 홈경기서

최하위 부천FC에 0-2 '덜미'

전남드래곤즈가 리그 최하위 부천FC에 패배를 기록했지만 1위 자리는 지켰다.

전남이 13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부천과의 K리그2 16라운드 경기에서 0-2로 졌다.

앞선 15라운드 서울이랜드전에서 3-0 승리를 거두며 1위 탈환에 성공했던 전남은 이번에는 골 침묵으로 연승을 잊지 못했다.

하지만 선두다툼 중인 FC안양과 대전하나시티즌도 16라운드 경기에서 각각 무승부와 패배를 기록하면서 전남은 선두자리를 고수했다.

전남과 안양이 7승 5무 4패(승점 26)로 동률을 기록한 가운데 득점에서도 18점으로 같았지만 골 득실차에서 전남이 우위를 점했다. 전남은 16경기에서 12점을 내렸고, 안양은 14실점을 기록하고 있다.

부천이 초반부터 공세를 펼치며 전남을 압박했다.

그리고 전반 26분 부천 조현택의 원맨쇼에 전남이 속수무책 선제골을 내줬다.

수비수 조현택이 중원에서 공을 잡고 왼쪽을 돌파한 뒤 수비수들을 따돌리고 중원까지 진입해 오

른발로 슈팅을 날렸다. 이어 전남의 골망이 출렁이면서 조현택의 프로데뷔골이 기록됐다.

2분 뒤에는 추정호의 헤더가 전남의 골대로 향했다. 골키퍼 박준혁이 득점을 저지했지만 전반 37분 추정호의 발은 막지 못했다.

부천 이시현이 공을 몰고 페널티박스 안까지 진입했고, 김태현이 이를 저지했다. 그러나 경합과정에서 흐른 공이 추정호의 앞으로 향했다. 이어 추정호의 오른발 슈팅에 전남의 골대가 뚫리면서 0-2가 됐다.

전남은 후반 시작과 함께 앞서 서울이랜드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발로텔리를 투입하면서 득점 사냥에 나섰다. 하지만 끝내 부천의 골대를 열지 못하고 0-2패를 기록했다.

한편 전남은 이번 경기에 앞서 지난 7일 제창암으로 별세한 유상철 전 감독을 기리는 추모식을 진행했다.

유 감독은 2018년 전남드래곤즈 11대 감독으로 부임해 따뜻한 인품으로 선수단의 두터운 신망을 받았다.

이날 양 팀 선수단은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검정 리본 스티커를 달고 그라운드에 올랐다. 또 경기 전 전광판을 통해 헌정 영상이 상영됐고, 묵념이 진행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